제7강 그리스 문학의 역사 : 비극 성립의 배경 (1)

개요 : 그리스 문학은 서사시-서정시-비극의 순서로 발전했고, 비극은 기원전 5세기경에 태동했다. 장르의 형식의 차이 및 특징을 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한다.

서사시

그리스 역사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기적 같은 것이었다. 이전까지 그리스 민족에서 위대한 정신이 출현할 것이라는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 실은 문헌 자체가 없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에 관한 한 역사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파편들을 고대 그리스의 문명과 연결하기는 어렵다.) 최초의 역사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불가사의이다.

흔히 호메로스는 눈먼 음유시인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호메로스의 이름으로 전승되는 작품들(『일리아스』와 『오뒤세이아』)에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제는 두 작품의 저자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된 경향이다. 『일리아스』와 『오뒤세이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작품은 천재적 정신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는 점이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서사시의 성격 자체와 관련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객관적 세계이다. 서사시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그림이다. 세계는 개별자로서의 주체성(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은 직접성 속에서 그려진다. 객관성(있는 그대로의 세계), 나아가 총체성(전체로서의 세계)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의 객관성은 근대 자연과학이 말하는 객관성과 다르다. 엄밀히 말해서 서사시의 세계는 삶의 세계이며, 삶의 세계가 객관적 세계 자체의 지평이다. 서사시에서는 객관적 세계가 인간적 삶의 지평 속에 들어와 있으며 자연적인 세계는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세계 속에 편입되어 있다.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자연이 그 자체로 놀라운 생동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관심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비유의 진리는 객관적 사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표상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초를 뜯어먹은 뱀처럼'이라는 비유는 자연적 사실은 아니지만, '개구리를 잡아먹은 뱀처럼'이라는 비유보다 인간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신들의 세계 역시 인간적 세계 속에 들어온다. 신들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 초자연/신들은 모두 삶의 총체성 속에 들어오는 바, 삶 속에서 포착된 존재와 세계의 총체성을 구현한다.

서사시에서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지평은 일차적으로 공간이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킬레우스는 언제나 청년, 아가멤논은 언제나 장년, 메스토르는 언제나 노인이다.) 모든 것은 공간적 지평 속에 평면적으로 그려진다. 인간의 내면성조차 현실적인 공간 속에 표현된다. 호메로스는 인간의 내적 의식의 세계,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알지 못했다. 내적 갈등이 드러나야 하는 경우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일어난다. 분별력은 신의 음성으로, 자기 보존의 욕망은 동물의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면적 고뇌는 순수한 반성의 형식이 아닌 서로 다른 주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비극적 대립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공간적 평면 위에서 펼쳐지는 것일 뿐 표면과 이면의 대립이 아니다.

또한 서사시에는 '원근법'이 없다. 개별적인 주체로서 나타나는 관찰자의 시점이란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정신에 의해 포착된 인간의 삶은, 중심이 되는 반성적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펼쳐져 있기만 하다.

그러나 호메로스에 있어서도 드러나 있지 않을 뿐, 감추어진 시선(숨은 신?)이 모든 파노라마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하다. 사실 원근법이 생기는 순간, 주체는 개별화되고 세계로부터 소외된다고 볼 수 있다. 호메로스의 세계가 원근법을 알지 못함은 세계 전체가 보편성에 의해 즉자적으로 매개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소외된 주체는 다시 세계를 자기 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호메로스의 세계는 주체가 전체로서의 삶의 세계로부터 이탈하기 전의 즉자적인 통일성 속에 있다.(←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서사시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신과 영웅이다. 이때 신이나 영웅은 보편화된 인간 주체를 상징한다. 일차적으로 신은 완전한 인간을 표현하는 한에서 이상적인 완전성 또는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서사시에서 신성(神聖)은 또한 인간의 분열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인간의 삶은 신성함에 의해 규정되지만, 다른 한편 야수성에 의해 규정된다. 영웅들은 이 사이에 걸쳐진 존재다. 자연을 닮은 직접성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고양시키는 신성함 사이에서, 영웅은 신적인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동경과 열망을 표현한다.

신적인 측면(이상, 완전성)에 대립되는 다른 계기들은 죽음 혹은 허무이다. 한편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신적인 세계에 대한 끝없는 경탄으로 특징지워진다. 영웅들은 탁월한 것을 향해 온몸을 던진다. 그러나 그들을 늘 따라 다니는 것이 죽음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삶은 본질적으로 전쟁터다. 그러나 이 속에 신적인 밝음이 있고 거기에 삶을 거는 인간들이 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차원의 중첩에 의해 짜여진다. 서사시의 삶은 한편으로 신적인 영원과 지복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 모든 인간을 죽는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그리고 있다. 영원성에 관한 동경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병치시키는 것이 삶의 비극성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성을 표현함에 있어 호메로스는 단지 대조적인 삶의 계기들을 보여줄 뿐이다. 이를테면 앞장에서는 신들의 지복이 묘사되지만 이어지는 인간들의 삶에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벌어진다. 천상의 지복과 지상의 죽음이 늘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보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교차하는 삶의 차원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시인은 침묵한다. 이것이 호메로스의 비극 수법이다. 여기서 신적인 삶은 지상의 삶의 비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장치이다. 신적인 삶의 지복에 대한 동경이 큰 만큼 인간 삶의 비극성에 대한 절망 또한 깊다. 신적인 완전성과 인간 사이에 놓인 무한한 거리. 오직 이 거리를 통해서만 삶이 진정성을 얻는다는 인식은 이후 그리스적 정조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게 된다.